



함평군 ‘장애인콜택시’ 연중무휴 운영

대중교통 이용 어려운 장애인·임산부·65세 이상 노인 대상

총 4대 운영…기본요금 2km당 500원·추가시 1km당 100원 확정

함평군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콜택시는 훨씬 더 편리한 특별교통수단이다. 앞서 군은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이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난해 말 조례 개정을 통해 콜택시 운행시간을 24시간 365일로 확대조정했다.

운행차량도 국도비 지원을 통해 1대를 늘리면서 현재 총 4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요금 체계도 저렴하게 개편해 주간 기준 관내는 군내

버스 요금,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을 상한으로 기본요금 2km당 500원, 추가 요금 1km당 100원으로 확정했다.

다만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심야시간엔 주간요금의 2배가 부과되며, 휴일 및 심야운행은 이용 예정일 하루 전까지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사전예약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이용 대상이 ‘1·2급’ 장애인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됐고 운행지역도 광주를 포함한 도내 인접 시·군까지 확장됐다”면서, “아직까지 장애인콜택시 이용 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 세대는 증빙서류 등 등록신청서류를 갖춰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팩스(061-287-8342) 또는 이메일(power2963@hanmail.net)로 제출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김평준 기자

광주 서구, 취약계층 위기상황 해소 위해 긴급복지 지원 실시

빈곤계층 추락 방지 사업

광주 서구가 취약계층의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을 실시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후·폐업, 주소득자의 사망,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빈곤계층 추락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실직, 폐업, 사망, 질병, 공과금연체 등)이 발생하고 중위소득 75%이하(4인가구 356만원), 재산기준 1억8천8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보유액이 500만원(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대상자는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 의료지원대

상자는 300만원의 범위 내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구 상황에 따라 주거비, 교육비, 해산, 장제비 등도 지원된다.

서구는 올해 위기상황에 처한 어려운 이웃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34억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현수막개첩, SNS 활용, 서구소식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대상자 발굴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시민들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할 경우 혼자서 고민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지 말고 서구청 복지급여과(062-360-7630)나 가까운 동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여 꼭!!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아라 기자

곡성군, 그물망복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나서

동절기 소외계층 집중 발굴…현재까지 107명에게 복지 서비스 제공



곡성군이 그물망복지 체계를 구축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성과를 내고 있다.

곡성군은 동절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위기가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실업 및 한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자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시작했다.

현 재 까지 502명을 대상으로 위기 사유를 확인하고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107명에 계

긴급복지, 기초생활수급 등 공적급여를 제공하거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복지자원을 연계했다.

또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유통망을 가진 46가구를 통합사회대상자로 선정해 민관협력을 통한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곡성군은 올 1월말 기준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35%를

넘어섰다. 전국 평균 15.5%보다 매우 높은 편이며,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장애인 가구 또한 11.4%로 전국 5% 보다 높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비율도 전체 약 10%를 차지하고 있어 취약계층이 많은 편이다. 곡성군 측은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만큼 아직 파악이 되지 않는 복지사각지대도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곡성군은 위기 가구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조사와 병행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11개 읍면 중 3개 권역에는 맞춤형 복지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전담팀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과 나머지 8개 면 복지팀은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을 찾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민간과의 협력으로 품

촘한 복지 관계망을 구축했다. 11개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28명,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 기동대원 82명, 희망드림복지반장 619명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특히 곡성군은 단전·단수, 실업, 임대료 체납 자료 등을 활용해 536가구를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발굴된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등 공공 복지 서비스와 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복합적인 복지 욕구가 있는 대상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관리해 지속적으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게 된다.

곡성군 주민복지과 담당자는 “복지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에서 누구나 누려야 하는 보편적인 것으로 그 의미가 계속 확대되어 왔다.”면서 “모두를 위한 복지,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배려하는 복지를 통해 군민 모두가 소외받지 않는 그물망 복지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장성진품한우식육식당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37-56 TEL : 061)394-0092